시 론

안부를 묻는 일이 한 사람을 지킨다



김 선 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11월의 저녁은 서둘러 찾아온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조금 전까지 환하던 골목에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는다. 가로수 아래에는 마른 잎이 모이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민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창마다 불이 켜지는 시간이면 문득 궁금해진다. 저 불빛 아래 있는 이들은 오늘 누구와 말을 나누었을까.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이름이 저장돼 있다. 손가락 하나로 먼 곳의 소식까지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가까운 이의 하루는 모른 채 지낸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도 바쁘겠거니 생각하고, 다음에 만나자는 말로 계절을 넘긴다. 그렇게 미뤄 둔 이름 가운데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 통화에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던 친구, 늘 먼저 전화를 걸어오다가 어느 날부터 잠잠해진 지인이다.

외로움은 반드시 혼자 사는 집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족과 식탁을 마주하고도 속내를 꺼내지 못할 수 있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웃다가 돌아와 긴 한숨을 내쉴 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생활만으로는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잘 지내지요?"라는 물음에 돌아오는 짧은 대답 뒤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곧잘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더 묻지 않는다. 상처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곁을 내어 줄 기회마저 놓친다. 어려움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연락을 주저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의 해답인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줄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내가 한 사람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한 생의 의미를 그토록 작고도 깊은 자리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우리가 건네는 몇 마디가 타인의 고통을 모두 덜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힘겨운 저녁을 함께 견디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묻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별일 없지?"하고 대답을 서두르기보다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라고 여유를 내어 보는 것이다. 말을 꺼냈을 때 곧바로 충고하거나 내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지 않는 태도도 필요하다. 어렵게 내보인 속마음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켜 주는 것. 그 기다림이 있어야 다음 문장이 이어진다.

관심에도 예의가 있다. 답하고 싶지 않은 사정을 캐묻거나, 도움을 받는 처지를 부끄럽게 해서는 곤란하다.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 병원에 가는 길을 동행하겠다는 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처럼 상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야 한다. 호의의 크기는 베푸는 쪽의 만족보다 받는 이의 표정에서 가늠할 일이다.

이러한 마음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 둘 수도 없다. 이웃의 발길이 뜸해진 것을 알아차리는 생활의 관계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꾸준히 살피는 공공의 돌봄이 이어져야 한다.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어르신의 사정을 확인하고, 생계와 간병으로 지친 가정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둬야 한다. 따뜻한 말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질 때 공동체에 대한 믿음도 자란다.

광주라는 도시의 온기는 일상의 골목에서도 만들어진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얼굴을 기억하는 일, 며칠째 문을 닫은 가게의 주인에게 연락해 보는 일, 오래 보이지 않는 이웃의 소식을 조심스레 살피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동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서로를 알아보는 눈길이 쌓이면 어려운 사정도 조금은 일찍 드러날 수 있다.

낙엽이 지고 나면 나무 사이로 건너편 집이 보인다. 무성한 계절에는 가려져 있던 창문이다. 이 가을에는 우리도 분주함에 가려 놓쳤던 얼굴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 늘 씩씩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아 잊고 지냈던 이에게도 저마다 건너는 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마음에 걸리던 이름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어 보자. 목소리가 들려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대답을 들을 만큼 시간을 내어 두자.

깊어 가는 가을, 누군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전화를 내려놓지 않는 저녁이면 좋겠다.

현장칼럼

느린학습자 아동의 사회성 키우기



최 강 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족을 시작으로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가운데 또래 친구와의 만남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첫 번째 사회이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놀이를 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 속에서 아동은 의사소통과 배려, 협력하는 방법을 하나씩 익혀 간다. 친구와 잘 지내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힘이다.

의사소통과 또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능력이 아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함께 어울리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아동) 역시 이러한 경험이 더욱 필요한 아동들이다. 친구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놀이 규칙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보다 관계를 배워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성은 단순히 친구를 많이 사귀는 능력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함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삶의 중요한 역량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협동활동과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도 함께 길러 준다.

안정적인 또래관계는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구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들고, 모둠활동이나 발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궁금한 점을 친구나 교사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함께 배우는 과정이 늘어나면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참여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사회성과 학습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와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 운영하는 복권기금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사회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파견전문가는 인지·학습 지원과 함께 아동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놀이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아동들은 협력하는 방법과 관계를 맺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아 간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자신 있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친구와 잘 지내는 것도 배워 가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모든 관계를 능숙하게 이어가는 아동은 없다. 하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작은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경험이 하나씩 쌓일수록 관계를 맺는 힘은 조금씩 자라난다. 오늘의 또래관계에서 배운 의사소통과 배려는 앞으로 살아가며 만날 수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독자투고

농산물 절도는 엄연한 중범죄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은 농민들에겐 지난 한 해동안 뿌린 수고와 땀의 알찬 결실을 맺는 가장 값진 시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확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농산물 절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수확철 농민들의 방범의식 고취는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생계유지비로 사용해야 할 농산물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해당 농민의 절망감과 경제적 타격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기성세대는 옛날 친구들과 함께 동네 이웃 밭에서 자라는 참외나 수박, 사과 몇 개를 몰래 따다 먹는 일명 '서리'라는 것이 있을때가 있었다. 그때는 동네 개구쟁이들의 놀이거리로 인식되고 농산물 주인 또한 웃으려 관용으로 넘기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으로 남의 농작물에 손을 됐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절도는 엄연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한 두개 가져가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인이 있는 농산물을 허락없이 훔쳐 갈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필자가 순찰을 하다보면 종종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발견하곤 하는데 우선 과수원이나 농산물 저장창고가 동네에서 떨어진 외진곳에 위치해 자칫 농민들의 경계를 소홀히 할 경우 절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절도범들이 낮 시간대 작업인부나 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수확을 앞둔 과수원에 침입해도 눈여겨 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피해를 볼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과수원, 농원 등 대규모 부지에서 출하되는 농작물 생산량을 생각해보면 한순간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까지 피해가 산더미처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의 소중한 결실을 지키기 위해 농가 빈집털이, 농축산물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순찰과 형사활동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우선 농민들은 절도범들이 쉽게 농장이나 저장창고에 접근할수 없도록 보안등이나 CCTV, 경고 표지판 등 방범시설물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 또한 낯선 차량이 농로를 자주 오가거나 수상한 인물이 농가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농촌 지역 농산물은 농민들의 생계와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루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해 동안 땀과 노력의 결실이 온전히 농민들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공동체 치안이 필요한 시기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경비안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다

우려됐던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일단락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미교부액 169억원 중 100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고, 교육청도 특별시의 계획에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인 만큼, 이같은 논란이 재현되면 안된다.

전남광주시는 올해 제2회 추경안 심의에 10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 급식 예산은 총 1천57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특별시가 45.7%, 5개 자치구 6.2%, 교육청 48.1%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각 기관은 정해진 분담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미교부액 169억원은 233개 유치원 1만7천472명 등 광주지역 총 565개교 17만819명의 44일분 학교급식 예산이다. 미교부액 전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 온 교육청은 특별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100억원 연내 편성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대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올해 부족 재원을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물론 각종 복지와 행정 수요 증가로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과 학교 현장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남광주시와 교육청은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재원 분담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여기에다 교육청이 내년 1월 초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특별시에 1월 중 법정전입금 등 자금 요청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이미 정착된 교육 가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스타벅스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남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닫은 매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국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스타벅스 광주지산유원지입구점이 지난달 30일을 영업을 종료했다. 이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첫 매장 폐점 사례다.

스타벅스 광주지산유원지입구점은 지난 2017년 10월30일 지상 2층 규모의 단독 상가건물에 문을 열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도 익숙한 대형 매장이다.

다만 이번 매장 폐점이 '탱크데이' 논란이나 불매운동의 결과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스타벅스측은 해당 매장 철수 사유는 계약 만기에 따른 영업 종료로,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지난해 폐점 예정이었으나 계약이 단기 연장됨에 따라 1년 더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매장 신규 출점과 폐점 사항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만약 스타벅스측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광주지산유원지입구점 폐점과 탱크데이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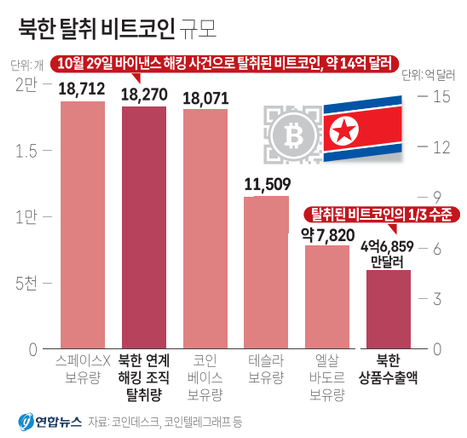
그러나 스타벅스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던 지난 5월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이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업의 마케팅 문구인 탱크라는 단어 하나가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의 희생과 저항을 상징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억과 상처를 크게 훼손시키는데 충분했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국내 커피브랜드 1위(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기준)를 내줬다는 점도 가볍게 여겨선 안될 대목이다. 지난달 추정 결제액 1천200억원대를 기록하며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순한 지표일 뿐이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매장 수나 결제액 보다는 소비자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다는 사실이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에 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北해커 훔친 비트코인, 테슬라 보유량 넘어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보유량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축적해 온 엘살바도르 정부 보유량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탈취한 비트코인의 가치만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배에 달한다.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바이낸스 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비트코인은 총 1만8천270개로, 개당 7만8천500달러의 시세를 적용하면 약 14억달러(약 1조8천701억)에 달한다.

이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1만1천509개보다 약 59% 많은 규모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9월 말 기준 투자 및 운영 목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 1만8천71개보다도 199개 많다. 코인베이스가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는 비트코인은 제외한 수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보유량 1만8천712개에도 육박한다.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가 이후 관련 제도를 변경한 중미 엘살바도르 정부의 보유량은 약 7천820개로, 이번 탈취량은 그 2.3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瀕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